

□ 연구논문

식민지시기 조선인 박물학자 성장의 맥락: 곤충학자 조복성의 사례

김성원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I. 머리말

II. 식민지시기 조복성의 연구자 성장 경로와
배경

III. 조복성의 중국 곤충 연구와 그 시대적 맥락

IV. 조복성의 조선과학운동 참여와 남경박물관

진출 의미

V. 맺음말

I. 머리말

식민지시기 조선에서 활동했던 박물학자(naturalist)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 조선인 박물학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성과로는 나비 분류학자 석주명(石宙明)에 대한 문만용의 논문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¹⁾ 그 외에 조선에서 활동했던 일본인이나 기타 외국인 박물학자들에 대한 연구 성과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²⁾

문만용의 석주명 연구는 한 조선인 박물학자가 식민지시기의 열악한 연구 환경을 극복해 나가면서 조선산 나비 분류의 권위자로 성장한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이 연구에서 문만용은 석주명이 일본인 연구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³⁾ 석주명은 일본인 박물학자들로부터 도제적인 교육을 받으며 연구자로 성장하지 않았으며, 연구 활동 역시 일본의 연구 기관이나 박물학자들의 특별한 도움 없이

1) 문만용, “‘조선적생물학자’ 석주명의 나비분류학”,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1권 제2호 (1999), 157-193쪽, 식민지시기에는 생물학이라는 용어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박물학(natural history)라는 용어가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 글에서도 조복성을 박물학자(naturalist), 조복성이 연구한 학문 분야를 박물학(natural history)라 지칭하도록 하겠다.

2) 김근배,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문학과지성사, 2005), 22-28쪽.

3) 문만용, “‘조선적생물학자’ 석주명의 나비분류학”, 159쪽.

독자적인 노력을 통해 수행했다는 것이다. 조선 현지에서 수많은 채집 표본 연구를 수행한 석주명은 ‘개체변이 곡선’을 발견하며 조선산 나비분류에 있어 일본인 박물학자들이 ‘동종이명’ (synonym)을 남발한 오류를 바로잡기도 했다. 이러한 석주명의 나비 연구는 1930년대 ‘조선학연구’와 맥락이 맞닿아 있는 생물학 분야에서의 ‘국학연구’로서 ‘민족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었다.⁴⁾

이를 통해 문만용은, 식민지시기 조선인 박물학자가 일본인 박물학자로부터 과학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은 않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석주명의 사례는 조선인 박물학자가 일본인 박물학자들에 비해 거의 대부분 별다른 연구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식의 단선적인 시각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최소한 나비분류학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조선인 박물학자가 일본인 박물학자 못지않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주명의 사례를 식민지시기 조선인 박물학자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식민지시기 박물학의 상황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려면 당대에 조선에서 활동한 다른 박물학자들의 사례들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식민지시기 박물학사의 전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석주명과 같은 ‘독립적’ 연구자 외에도 조선에서 활동한 일본인 박물학자들 및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활동한 조선인 박물학자들의 사례에도 주목해야 한다. 사실상 식민지시기 조선의 박물학 연구는 일본인 연구자들이 주도했다. 1900년대 초부터 조선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일본인 박물학자들은 경성제국대학 예과나 의학부, 수원고등농림학교, 총독부 산하 임업시험장, 농사시험장, 수산시험장, 은사과학기념관 등 생물학 관련 교육기관이나 시험기관, 박물관에서 근무하며 조선산 동식물을 채집·분류했다.⁵⁾ 1923년에 결성된 조선박물학회에서는 1924년부터 1944년까지 40여회에 걸쳐 조선박물학회잡지(朝鮮博物學會雜誌)를 발간하였는데, 이 학술지에 게재된 총 318편의 논문 중 282편이 일본인 박물학자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⁶⁾

식민지시기 석주명과 함께 연구실적 면에서 대표적인 조선인 박물학자인 정태현(鄭台鉉), 조복성(趙福成)은 일본인 박물학자들과 협력하면서 성장했다.⁷⁾ 이들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석주명과 달리 일본인 박물학자로부터의 도제식 학습과 연구 성과 공동 발표 등을 통해 대표적인 조선인 박물학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정태현, 조복성의

4) 같은 글, 176-191쪽.

5) 김창환, “한국생물학사”, 한국현대문화사대계 III 과학·기술사, 159-165쪽.

6) 李炳勛·金辰泰, “서양 근대 생물학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동물분류학을 중심으로”, 한국동물분류학회지 10:1 (1994), 90쪽.

7) 李德鳳, “最近世韓國植物學研究史”, 亞細亞研究 4:2 (1961), 136-137쪽; 關正조복성박사기념사업회, 조복성곤충채집여행기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5), 135-154쪽.

경력을 볼 때 식민지시기 일본인 박물학자와의 협력은 조선인이 박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유력한 경로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식민지시기 대표적인 조선인 박물학자 중 하나인 조복성(趙福成)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조복성은 평양 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졸업한 뒤 모리 타메조(森爲三), 도이 히로노부(土居寛暢) 등 조선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일본인 생물학자들과 도제 관계를 맺고 경성제대 예과 생물학교실 조수로 근무하면서 연구자로 성장했다. 곤충분류학 분야에서 조복성은 조선인 최초로 1929년 나비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이래 식민지시기 58편의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연구 범위 역시 한반도에 한정되지 않고 만주·내몽골·화북 등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 박물학계의 관심이 늘어났던 지역을 두루 포괄했다. 이러한 조복성의 사례는 그가 일본인 박물학자와 협력하면서 연구자로 성장한 대표적인 조선인 박물학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조복성의 사례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식민지시기 조복성의 성장 경로 및 배경은 무엇일까? 조복성이 식민지시기 수행한 연구 활동에는 당대의 시대적 환경과 맥락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 식민지시기 조복성은 일본인 박물학자와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collaboration)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조선인 사회에서는 일본인 박물학자와 협력한 조복성이 어떻게 인식되면서 사회적 활동을 벌여 나갔을까? 조복성이 조선인 사회에서 펼친 활동과 그가 박물학자로 성장할 기회를 획득한 것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었을까? 이러한 문제들을 규명함으로써 식민지시기 박물학 분야에서 조복성이 수행한 협력의 의미와 맥락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 보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는 식민지시기 조복성의 성장 경로 및 배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인 박물학자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경성제대 예과 조수가 된 계기와 연구 환경 및 연구 방식의 특징이 밝혀질 것이다. 3절에서는 1930년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이후 중국으로의 경성제대 연구 범위 확장과 관련해서 당시 조복성의 연구 경향을 조사할 것이다. 또한 1930년대 조복성의 곤충 연구가 일본의 중국 점령지 기관과의 협조 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4절에서는 식민지시기 조복성의 조선과학운동 참여와 중국 남경박물관 진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를 통해 조복성이 조선인 사회에서 대표적인 박물학자로 인식되며 교류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1940년대 전반 일본의 중국 점령지 학술기관 개편 흐름이 제공한 기회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욱 독립적인 연구자로 거듭날 수 있었음을 보여주겠다. 맺음말에서는 조복성의 사례가 20세기 전반 조선인 박물학자 성장의 식민지적 맥락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음을 논하겠다.

II. 식민지시기 조복성의 연구자 성장 경로와 배경

1. 조복성의 연구자 성장 경로와 일본인 박물학자의 후원

식민지시기 일본은 조선인의 고등 교육을 가급적 억제하는 정책을 취했다. 조선에 일본이 세운 전문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은 은연중에 조선인 학생 비율을 1/3로 제한하고 있었다.⁸⁾ 조선총독부는 식민지에서 필요한 과학기술 연구자 또한 대개 일본인으로 충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조선인 과학자들은 전문연구기관에 참여하는 데 큰 제약이 뒤따랐으며, 일부 연구자로 채용된 사례는 대개 일본인 과학자들과의 각별한 관계가 뒷받침된 경우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민지시기에는 조선인 과학자들의 성장이 어려웠다고 인식되고 있다.⁹⁾

하지만 박물학의 경우는 조선인 연구자가 출현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과학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었다. 박물학의 경우 ‘지역성’ (locality)이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조선의 풍토와 사정에 익숙한 조선인들이 일본인보다 상대적으로 박물학 연구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¹⁰⁾ 또한 농학, 의약학, 임학, 수산학 등 박물학 인접 실용학문 분야의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 조선인들이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이를 반영하듯, 박물학의 경우에는 식민지시기부터 조선인 연구자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20-40년대 조선박물학회 전체 회원 총수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합쳐 200-230여명이었는데, 그 중 조선인 회원은 20-40여명 정도로 대략 10-20%의 비중을 차지했다.¹¹⁾

식민지시기 박물학자로 활동한 조선인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연구자로 성장했다. 첫째, 일본 등 해외 유학을 통해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8) 김근배, “식민지시기 과학기술자의 성장과 제약: 인도 · 중국 · 일본과 비교해서”, □ 한국근대사연구□ 8 (1998), 164쪽.

9) 같은 글, 181-186쪽.

10) 문만용, “‘조선적 생물학자’ 석주명의 나비분류학”, 158쪽.

11) □ 朝鮮博物學會雜誌□ 4 (1927. 1. 10.), “會員名簿”, 66-67쪽; □ 朝鮮博物學會雜誌□ 9 (1929. 12. 25.), “會員名簿”, 48-53쪽; □ 朝鮮博物學會雜誌□ 15 (1933. 7. 31.), “會員名簿”, 88-112쪽; □ 朝鮮博物學會雜誌□ 17 (1934. 2. 28.), “會員名簿”, 80-86쪽; □ 朝鮮博物學會雜誌□ 17 (1934. 2. 28.), “會員名簿”, 80-86쪽; □ 朝鮮博物學會雜誌□ 22:1 (1937. 1. 1.), “會員名簿”, 6-8쪽; □ 朝鮮博物學會雜誌□ 29 (1940. 12. 25.), “會員名簿”, 46-49쪽. 등에서 조선인 회원 숫자를 계산했다.

연구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이었다. 해방 당시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조선인 학자 16명은 모두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¹²⁾ 이런 경로를 밟은 학자 중 대표적인 사례는 홋카이도(北海道) 제국대학을 졸업한 후 만주국 대륙과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한 이민재(李敏載)였다.¹³⁾ 둘째, 조선이나 일본에서 농학이나 임학, 수산학, 의학학과 같은 박물학 인접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중등학교에서 박물학 교사로 활동하는 것이었다. 일본 가고시마(鹿兒島) 고등농업학교 농학과 졸업 이후 송도 고등보통학교에서 박물학 교사로 근무한 석주명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¹⁴⁾ 셋째, 일본인 박물학자로부터 도제식 교육을 받으며 박물학 연구자가 되는 것이었다. 일본 박물학자 이시도야(石戸谷勉), 나가이(中井猛之進) 등의 조수로 활동한 정태현(鄭台鉉)은 도제식 교육을 받으며 식물분류학자로 성장했다.¹⁵⁾

이 중 조복성은 세 번째 경로인 일본인 박물학자로부터의 도제식 교육을 받고 연구자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1905년 12월 3일 평안남도 평양 경창리(景昌里)에서 4녀 1남 중 막내아들로 태어난 조복성은 어린 시절부터 곤충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다.¹⁶⁾ 1919년 평양고등보통학교 진학 이후 조복성은 평양고보(平壤高普) 박물학 교사로 근무하면서 조선에서 곤충분류학을 연구하던 일본인 박물학자 도이 히로노부(土居寛暢)와 접촉하게 된다.¹⁷⁾ 이를 통해 조복성은 박물학에 관심을 가지며 도이로부터 곤충 채집 · 분류 · 표본 제작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¹⁸⁾

1924년 3월 평양고보 사범과를 졸업한 이후 조복성은 도이의 추천으로 해주 제2보통학교 훈도로 부임했다.¹⁹⁾ 이곳에서 그는 본격적인 곤충학 연구자로 발돋움 할 수

12) 문만용 · 김영식, 『한국 근대과학 형성과정 자료』 (서울대 출판부, 2003), 167-170쪽.

13) 李敏載, 『第三 滄巖文集』 (도서출판 아카데미서적, 1990).

14) 문만용, “‘조선적 생물학자’ 석주명의 나비분류학”, 161쪽.

15) 신향숙, “한국 생물학의 개척자 정태현(鄭台鉉)” (미발표원고) (2007), 3-4쪽.

16) 관정조복성박사기념사업회, 앞의 책, 134쪽; 金昌煥, “한국 곤충학의 선구자 곤충학자 조복성 박사”, 『古稀記念奎山文集』 (서울: 高麗大學校 附設 韓國昆蟲研究所, 1989), 590쪽.

17) 도이 히로노부(土居寛暢)는 1916년 평양고보에 부임한 이래 1922년 신의주고등보통학교 교감으로 전근할 때까지 그곳에서 근무했다. 1926년에는 신의주고등보통학교 교장, 1927년에는 신의주중학교 학교장 사무취급(事務取扱), 1928년에는 다시 신의주고등보통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직원록』 (역사정보시스템[http://www.history.go.kr] 전산 자료에서 재인용, 2006. 7. 16. 접속). 1929년부터는 경성부 남산 왜성대(倭城臺) 町 4번지(현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번지)에 있던 은사기념과학관(恩賜記念科學館, 현 국립중앙과학관 전신) 촉탁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정인경,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문화의 식민지성: 국립과학관사(國立科學館史)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7-98쪽.

18) 관정조복성박사기념사업회, 앞의 책, 30, 39쪽.

19) 金昌煥, “한국 곤충학의 선구자 곤충학자 조복성 박사”, 591쪽. 훈도(訓導)는 오늘날의 초등학교 교사이다.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황해도 교육당국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황해도 보통학교 이과선생 150명을 상대로 생물학강습회를 해주 사범학교에서 가졌는데 그 강사로 경성제국대학 예과에서 생물학을 강의하던 모리 타메조(森爲三)²⁰⁾가 방문한 것이다. 황해도 학무과는 서울 손님을 맞이하면서 도 교육 여건의 수준을 자랑하기 위해 조복성에게 곤충 표본을 모두 해주 사범학교에 가져 오라고 지시했다. 박물관에 진열해 놓은 곤충 표본이 매우 훌륭한 것을 본 모리는 조복성에게 관심을 보이며 자신을 따라 서울에 올 것을 권했다.²¹⁾

1925년 모리와 함경남도 파탑(把塔), 황수원(黃水院), 대덕산(大德山) 일대로 함께 채집 여행을 떠난 것을 계기로 조복성은 모리의 조수 노릇을 하기 시작한다. 1926년 2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모리가 특별히 요청한 덕택으로 경성의 수하(水下) 보통학교 훈도로 옮겨간 조복성은 그 해 여름 일본에서 최초로 조직한 백두산(白頭山) 탐험대에도 모리를 따라 참가했다.²²⁾ 1926년 7월 29일 해산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3주일간의 백두산 탐험일정에서 조복성은 6백여 종에 걸쳐 6천 마리 가량의 곤충을 채집했다.²³⁾ 채집한 표본은 그 해 11월 28일 경성공립중학교 물리학실험실에서 전시했으며 모리의 논문 “白頭山及附近高地帶ノ胡蝶類ト其ノ分布”(백두산 및 그 부근 고지대의 호랑나비류와 그 분포)²⁴⁾에서도 소개되었다. 이 무렵 조복성은 조선박물관학회에도 가입했다.²⁵⁾

20) 모리 타메조(森爲三)는 1884년 6월 9일 일본 효고(兵庫)현에서 출생했다. 1904년 4월 東京帝國大學 이과대학 부설 第一臨時教員養成所 박물관과를 졸업하고 立教中學校 강사, 1905년 2월 佐賀縣立 鹿島中學校 教諭를 거쳐 1909년 4월 한국정부의 초빙에 응해 한국에 건너와 漢城高等學校 교수가 되었다. 1911년 경성고등학교 교수, 1911년 경성고등보통학교 教諭, 1913년 8월 임시교과용 도서편집 사무 취급, 1917년 5월 경성고등보통학교 教諭, 1922년 4월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教諭, 1924년 1월 同 학교 舍監을 역임했다. 1924년 5월 2일 京城帝國大學豫科講師 囑託이 되었고, 1925년 4월 京城帝國大學 예과 교수에 임명되어 1945년까지 재직했다. 조선총독부, 日本 조선총독부직원록 日本 (역사정보시스템[http://www.history.go.kr]에 전산화 된 자료에서 재인용, 2006. 7. 16. 접속). 해방 후에는 일본에서 효고(兵庫) 농대 교수를 역임했다. 모리 타메조(森爲三)의 연구 업적은 日本 兵庫生物 日本 (森爲三先生文化賞受領記念號) 제3권 제5호 (1959. 1.) 別刷 “森爲三業績目録”, 1-4쪽을 참조할 것.

21) 조복성, “벌레 찾아 저문 오십년”, 304쪽.

22) 같은 글, 305쪽; 관정조복성박사기념사업회, 앞의 책, 55-62쪽; 金昌煥, “한국 곤충학의 선구자 곤충학자 조복성 박사”, 日本 古稀記念奎山文集 日本, 591-592쪽 등.

23) 백두산 탐험대 인원 구성 및 여행 일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日本 朝鮮博物學會雜誌 日本 4 (1927. 1. 10.) 雜報, 57-65쪽 참조.

24) 日本 朝鮮博物學會雜誌 日本 4 (1927. 1. 10.), 21-23쪽.

25) 정확한 날짜는 확실하지 않지만 1926년 12월 현재 조복성이 조선박물관학회 회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경성 수하동 보통학교로 전근되고 모리의 조수 노릇을 시작한 이후 조선박물관학회에 가입한 것 같다. 朝鮮博物學會, “會員名單(大正 15(1926). 12. 현재)” 日本 朝鮮博物學會雜誌 日本 4 (1927. 1. 10.), 68-73쪽.

백두산 탐험이 있는 지 2년이 지난 1928년 7월, 조복성은 첫 연구논문을 쓰기 위해 울릉도로 채집여행을 떠났다.²⁶⁾ 열흘간 걸친 채집여행에서 조복성은 인시류(鱗翅類) 20종(1아종(亞種) 포함)에 200개체 가량을, 하늘소과는 7종에 100여 개체를 채집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조복성은 1929년 조선인이 단독으로 쓴 최초의 곤충분류학 논문 “울릉도산 인시목(鬱陵島産鱗翅目)”을 『조선박물학회잡지』 제 8호에 발표했다.²⁷⁾ “울릉도산 인시목”이 발표된 지 1년 후인 1930년 4월 30일, 조복성은 경성제국대학 예과 생물학교실 조수가 되었다.²⁸⁾

2. 조복성의 연구 환경과 연구 방식

경성제대 예과 조수가 되면서 조복성은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마음껏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 환경의 개선에 대해 훗날 조복성은 “제국대학다음게 예산규모도 컸다. 당시 경성제대 각 과의 1년 예산이 600원이었다. 지금 돈으로 치면 6백만원이 넘는 엄청난 거액이다. 보통학교에 있을 때는 표본용 알콜 한병 사는 데도 군색하던 것이 여기는 청구만 하면 척척 나왔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공부 범위도 비단 곤충분류학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물분류학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모리(森爲三) 교수는 전공이 담수어이기 때문에 그의 조수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담수어는 물론 다른 분야의 동물학도 공부해야 되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훌륭한 선생 밑에서, 수많은 전문서적 속에 파묻혀,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받으며, 마음껏 학문적 영향을 섭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²⁹⁾

일본인 박물학자들과 폭 넓게 연구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조복성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조복성이 경성제대 예과 생물학교실 조수로 재직하던 1930년부터 1941년까지 발표한 52편의 논문들은 거의 모두 일본인 박물학자와 공동 연구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그 중 28편은 모리, 도이 등과 공저한 논문이었다.³⁰⁾ 단독으로 발표한 논문들도 대개는 모리·도이 등 일본인 연구자들의 학술 문헌 및 표본 대여, 교열 등의 도움을

26) 이 때 여행경비는 모리가 대주었다고 한다. 조복성, “벌레 찾아 저문 오십년”, 306쪽.

27) 趙福成, “鬱陵島産鱗翅目”, 『朝鮮博物學會雜誌』 8 (1929. 6. 30.), 8쪽; 박규택, “우리 나라 곤충연구의 발자취”, 『과학사상』 21 (1997. 여름), 128쪽 참조.

28) 京城帝國大學, “敍任及辭令”, 『京城帝國大學學報』 38 (1930. 5. 5.); 조복성, “벌레 찾아 저문 오십년”, 306쪽; 관정조복성박사기념사업회, 앞의 책, 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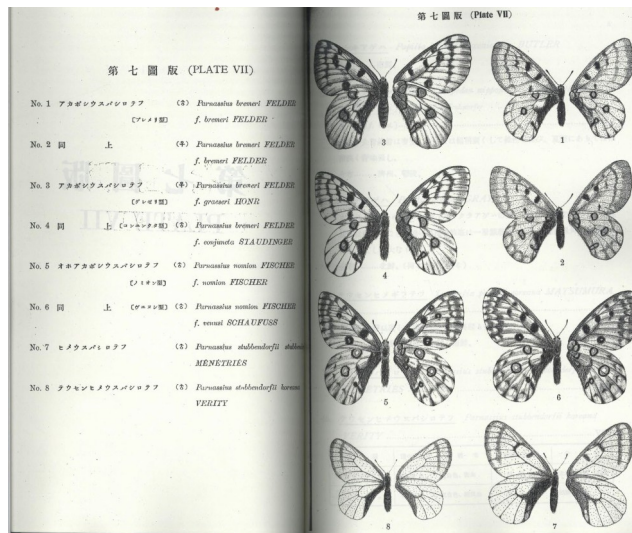
경성제국대학 예과 생물학교실 조수는 1945년 이전 일본 제국대학의 강좌제 하의 조수(助手)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물학교실의 사무를 돕는 직원을 뜻한다.

29) 조복성, “벌레 찾아 저문 오십년”, 306-307쪽.

30) 관정조복성박사기념사업회, 앞의 책, “論文解題”, 134-153쪽. 공저논문 28편 중 25편은 모리와 함께 발표했다.

받으면서 작성했다.³¹⁾

연구자 생활 초창기
조복성은 수준급인 곤충 그림
솜씨로 일본인 주도의 식민지
조선 박물 학계에서
주목받았다.³²⁾ 1934년
조복성은 모리, 도이와 함께 □
原色朝鮮の蝶類□ 라는
단행본을 펴냈다. 이 책은 그
당시까지 알려진 조선산 나비
211종이 수록된 일종의
도감이다. 책에 수록된 나비
284개체의 그림은 모두
조복성이 직접 그렸고, 나비
분류 목록은 도이가



<그림 1> 조복성의 나비그림. 출처: □ 原色朝鮮の蝶類 □ 제7도판.

작성했으며, 나비의 지리적 분포에 대한 해제는 모리가 썼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 原色朝鮮の蝶類 □ 에서 나타난 조복성의 곤충 그림 솜씨는 수준급이었다.³³⁾

이렇게 조복성의 곤충 그림 솜씨가 수준급이었던 것은 분류학 연구에 있어서 큰
함의를 지닌다. 조복성이 곤충들의 형태학적 특징에 대해 정통했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이는 곤충 분류에 있어 형태학적인 연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시절
연구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재능이었다. 그 때문에 조복성은 곤충에 관한 한
연구의 상당 부분을 주도하면서 일본인 박물학자들과 공저로 나비 도감을 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목(目)	논문수
딱정벌레목	39
나비목	6
나비 및 딱정벌레목	1
메뚜기목	2
매미목	1
기타 곤충 이외의 동물 일반	3
합계	52

<표 1> 조복성의 연구동물별 논문수

조복성이 경성제대 예과 조수 시절 발표한 논문

32) 金昌煥, “고 관정 조복성교수의 10주기에 즈음하여”, □ 古稀記念奎山文集 □, 594쪽.
33) 森爲三, 土居寛暢, 趙福成, □ 原色朝鮮の蝶類 □ (京城, 1934), 序言. 이 책은
수정보완되어 趙福成・金昌煥 共著, □ 韓國昆蟲圖鑑(나비편) □ 으로 1956년 章旺社
에서 재출간되었다. 金昌煥, “한국 곤충학의 선구자 곤충학자 조복성 박사” (□ 讀書新聞
□ 111호, 1973. 1), □ 古稀記念奎山文集 □ (서울: 高麗大學校 附設 韓國昆蟲研究
所, 1989), 592쪽.

(Description)나 목록(List) 형식으로 분류, 정리하여 보고하는 것이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논문들에서 다루고 있는 곤충들은 대개 딱정벌레목과 나비목이었다.³⁴⁾ 이러한 논문들을 작성하기 위해 조복성은 모리와 함께 조선, 만주, 내몽골, 화북 등지로 야외 채집여행을 간 횟수만 30여회나 될 정도로 현장 연구(fieldwork)를 활발히 수행했다.³⁵⁾ 이를 통해 조복성은 연구 생활 초기부터 미기록종 곤충들을 발견, 보고하였다.³⁶⁾ 또한 1935년까지 그가 동물명을 명명한 6종의 곤충 중 5종을 모리, 도이 등과 함께 발견했다.

37)

곤충의 형태학적 특성에 정통한 재능을 바탕으로 일본인 박물학자들과 협동 연구를 벌이는 조복성의 연구 방식은 1930년대 중반 이후 더욱 확연해졌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일본 박물학계의 연구 범위 확장에 따라 모리와 함께 만주 · 내몽골 · 화북 등지의 곤충 연구에 나섰다. 이러한 조복성의 연구 범위 확장에 대해서는 3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III. 조복성의 중국 곤충 연구와 그 시대적 맥락

1. 1930년대 조복성의 중국 곤충 연구 배경

경성제국대학은 1926년 창설 당시부터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만주 · 몽골 · 화북

34) <표 1> 참조. 이 표는 관정조복성박사기념사업회, 앞의 책, “論文解題”, 134-153쪽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35) 같은 책, 118쪽.

36) 예를 들어 주홍길앞잡이(*Cicindela hybrida*), 쇠길앞잡이(*Cicindela specularis*), 닳무늬길앞잡이(*Cicindela anchoralis*) 등 5종의 미기록종을 보고한 趙福成, “朝鮮産斑蝥科二就テ”, □ 朝鮮博物學會雜誌 □ 14 (1932. 7. 20.), 2-11쪽, 네줄범하늘소(*Chlorophorus quinquefasciatus*) 등 5종의 미기록종을 보고한 趙福成, “朝鮮産天牛科甲蟲數種二就テ”(其一), □ 朝鮮博物學會雜誌 □ 17 (1934. 2. 28.), 1-13쪽 등을 들 수 있다.

37) 조복성이 명명한 곤충 중 1935년까지 발견한 것은 개마암고운부전나비(*Zephyrbus etulae gaimana* DOI et CHO, 1931 = *Thecla betulina* STAUDINGER), 채일봉지옥나비(*Erebia shajitsuzanensis* MORI et CHO, 1935 = *Erebia theano pawlovskii* MENETRIES), 관모산지옥나비(*Erebia kwanbozana* DOI et CHO, 1934 = *Erebia rossii* ero BREMER), *Erebia nikitini* MORI et CHO, 1934), 개야길앞잡이(*Cicindela kaiyaensis* KANO et CHO, 1933 = *Cicindela brevopilosa* HORN) 등이다. 조복성과 도이, 모리 등은 이들 종의 학명을 명명했지만 후일 동종이명(synonym)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괄호 안의 라틴어 학명이 2개인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동물학회, 앞의 책, 39쪽.

등 조선에 인접한 지역을 연구하는 데 비교 우위를 발휘하는 제국대학이 될 것이라 기대되었다. 이러한 전망은 1931년 만주사변 발발 이후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경성제대 내부에 만주와 내몽골 지역을 연구하는 전 대학 차원의 연구 기관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전개된 것이다. 그 결과 1933년 6월 경성제국대학 만몽문화연구회(滿蒙文化研究會)가 설립되었다.³⁸⁾

만몽문화연구회는 경성제대 총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삼고, 교직원을 정회원, 본과 학생과 예과 생도를 학생회원, 기타 학외에서 만몽문화연구회를 후원하려는 자를 찬조회원으로 삼으며 “만몽문화의 학술 연구 및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만몽에 관한 지식 보급에 나서는” 연구 조직이었다. 연구회의 연구 부문은 크게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나뉘었다. 인문과학 부문에서는 지역 통치에 필요한 만몽 지역의 역사, 지리, 언어, 종교, 문화 등을 연구했다. 자연과학 부문에서는 만몽 여러 민족의 체질인류학, 약물학, 동물·식물·광물학 등 주로 인류학과 박물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회는 매년 도서 및 자료의 수집과 전람, 연구조사보고서의 간행, 학술강연회 및 연구회 개최, 연구조사여행 등과 “만주국·기타 내외 학술단체 및 연구자와의 연락 제휴”를 도모했다.³⁹⁾ 이 과정에서 만몽문화연구회는 학내 연구회원 뿐만 아니라 조선군 사령부나 조선총독부 소속 군인 관리들과도 만주와 내몽골의 정세와 현황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⁴⁰⁾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만몽문화연구회는 조직을 개편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38년 6월 경성제대 만몽문화연구회는 명칭을 대륙문화연구회(大陸文化研究會)로 바꾸고 연구 범위도 만주와 내몽골 지역 뿐 아니라 중국 대륙 전역으로 확장한 것이다.⁴¹⁾ 이와 관련해서 당시 경성제대 법문학부 교수인 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는 대륙연구를 “대륙문화전(大陸文化戰)”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군기(軍旗)의 정(征)에 과학의 기(旗)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일전쟁 수행 지원 및

38) 京城帝國大學滿蒙文化研究會, 『京城帝國大學滿蒙文化研究會會報』 第一號 (1933), 1쪽. 1945년 이전 일본에서는 만주와 내몽골 지역을 만몽(滿蒙)이라고 통칭했다. 이는 중국 본토와 만주 및 내몽골을 분리하여 바라보았던 2차대전 전 일본의 전반적인 시각이 반영된 용어이다.

39) 같은 책, 16쪽.

40) 대표적인 사례로 1935년 5월 10일 경성제대 법문학부 제1회의실에서 “滿洲問題の二三”(만주문제의 이삼)이란 제목으로 조선군사령부 야마모토(山本) 중좌를 초청하여 열린 좌담회나 같은 해 7월 3일 경성제대 본부 귀보실(貴寶室)에서 “滿洲見學旅行團のため”(만주견학여행단을 위해서)란 제목으로 조선총독부 외사과장 다나카(田中武雄)를 초청하여 열린 좌담회 등을 들 수 있다.

41) 정규영, “콜로니얼리즘과 학문의 정치학: 15년 전쟁하 경성제국대학의 대륙연구”, 『교육사학연구』 제9집 (1999), 26쪽; 정선이, 『京城帝國大學연구』 (문음사, 2002), 121쪽.

일본의 경제적 이익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대륙 연구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면서 경성제대 대륙문화연구회의 확대 개편을 정당화한 것이다. 그는 또한 궁극적으로는 후화(厚和), 포두(包頭) 등 내몽골·북중국 도회지에 기상·지질·동식물·민속·종교 등에 관련된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지역조사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42)

이처럼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발발 이후 경성제대는 본격적으로 연구 범위를 중국으로 확장하면서 학내 구성원들이 만주·내몽골·화북 등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장려해 나갔다. 조복성은 이러한 경성제대의 중국 연구 조류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조복성의 스승이자 상사인 모리는 이미 1927년부터 만주의 동물에 대한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있었으며,⁴³⁾ 또한 경성제대 만몽문화연구회(대륙문화연구회)에는 창립 당시부터 정회원으로 참여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갔던 것이다.⁴⁴⁾ 특히 모리는 1929년부터 만철(滿鐵) 조사부의 위탁을 받아 8년 동안 만주 지역의 담수어를 조사하고 연구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1939년 만주의 담수어 중 특히 유용한 30여 종을 분류하고 그 생태와 분포, 식용법 등을 기술한 『원색만주유용담수어류도설(原色滿洲有用淡水魚類圖說)』이라는 책을 발간했다.⁴⁵⁾ 조복성도 모리와 함께 북만주 주요 지역의 담수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여행에 동행하고 책에 실린 도판을 그려주는 등 이 책의 발간에 여러 모로 기여했다.⁴⁶⁾ 따라서 모리의 조수로서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조복성이 연구 범위를 만주·내몽골·화북 등지로 확장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1936년 ZEPHYRUS 제6권에 “滿洲國間島省の胡蝶類”란 제목으로 모리와 함께 발표한 논문이 중국(만주)의 곤충에 대해 조복성이 연구한 최초의 성과물이었다. 이

42) 尾高朝雄, “京城帝國大學蒙疆學術探險隊の成立と探險旅行の經過”, 『蒙疆の自然と文化: 京城帝國大學蒙疆學術探險隊報告書』(東京: 古今書院, 1939), 16-17쪽.

43) 森爲三, “On Three New Mammals from Manchuria”, Annot. Zool. Japo., Vol. 11, No. 2 (1927); “On Four New Fresh-water Fishes from River Liao South Manchuria”, 『朝鮮博物學會雜誌』 5 (1927); “遼河と黑龍江との淡水魚と其の動物地理的分布に就て相互の關係を論ず”, 『朝鮮博物學會雜誌』 5 (1927).

44) 모리는 1933년 12월 20일 열린 제3회 학술강연회 및 전람회에서 만주산 어류의 표본과 열하 지방의 사진 등을 전시하고, “熱河學術探險團に就いて”란 주제로 학술 강연을 하였다. 이와 관련 오사카 아사히 신문(大阪朝日新聞)의 협조로 경성제대 열하학술탐험단의 활동 모습이 영상물로 촬영되었다. 京城帝國大學滿蒙文化研究會, 『京城帝國大學滿蒙文化研究會會報』 第一號(1933), 2쪽. 모리가 경성제대 대륙문화연구회(만몽문화연구회) 창립 정회원임은 같은 책 19쪽에 나타나 있다.

45) 森爲三 編, “序” 『原色滿洲有用淡水魚類圖說』(大連, 1939).

46) 森爲三 編, “序文”, 같은 책.

논문은 1935년 8월 2일부터 12일까지 모리와 함께 고생물 화석을 발굴하기 위해 간도(間島)의 대마록구(大馬鹿溝)로 떠난 채집여행 도중 방문했던 간도의 용정(龍井)에서 간도중학교 및 용정 심상고등소학교와 현지인 최명제(崔明濟)가 소장하고 있는 곤충 표본을 조사하여 작성한 목록이었다.⁴⁷⁾ 이 논문에서 조복성과 모리는 3종의 조선 미기록종 나비를 보고하고 있다.⁴⁸⁾ 그 이후 1936년부터 조복성과 모리는 자주 만주, 내몽골, 화북 등으로 채집여행을 나가기 시작했으며 <표 2>에서 볼 수 있듯 이들 지역의 곤충에 대한 연구 논문의 발표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⁴⁹⁾

연도	연구지역별 논문 수					합계
	조선	만주	화북	내몽골	기타	
1936	4	2	0	0	0	6
1937	2	0	0	0	1	3
1938	1	8	0	0	0	9
1939	3	3	2	0	0	8
1940	2	5	3	0	0	10

<표 2> 1936-40년 조복성의 연구지역별 논문 수(공저 포함)

연도	연구지역별 논문 수					합계
	조선	만주	화북	내몽골	기타	
1936	7	0	0	0	0	7
1937	10	0	1	0	1	12
1938	13	0	0	0	2	15
1939	11	1	1	0	0	13
1940	3	0	0	0	0	3

<표 3> 1936-40년 석주명의 연구지역별 논문 수(공저 포함)

이러한 조복성의 연구 경향은 조복성과 다른 성장 경로를 걸으면서도 식민지시기 곤충 연구 실적에 있어 두드러지는 조선인 박물학자였던 석주명과 크게 대조된다. 석주명은 1930년대 후반에도 <표 3>에서 보듯 연구범위를 철저하게 조선으로 한정했다.⁵⁰⁾ 석주명이 식민지시기 발표한 76편의 논문들도 공저는 6편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단독 저술이었다. 연구한 논문들은 거의 모두 나비목에 집중되었는데, 나비목 중에서도 주로 나비에 대해 연구했다.⁵¹⁾ 석주명은 통산 75만 개체의 나비 표본을 채집하면서 소수의 표본만을 바탕으로 일본인 연구자들이 무분별하게 명명한 동종이명(synonym)을 정리하고, ‘개체변이 곡선’을 발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조선산 나비 분류의 권위자로서 성장해 나갔다.⁵²⁾

반면에 조복성은 경성제대의 중국 연구 조류에 따라 연구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조선

47) 관정조복성박사기념사업회, 앞의 책, 74쪽.

48) 森爲三·趙福成, “滿洲國間島省の胡蝶類”, *ZEPHYRUS*, 6 (1936), 293-301쪽. 이 논문에는 조선 미기록종 3종을 포함하여 호랑나비류 6과 72종의 목록이 기재됐다.

49) <표 2>는 관정조복성박사기념사업회, 앞의 책, “論文解題”, 135-153쪽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50) 이 <표 3>은 韓國동물학회지 11:4 (1968. 12.) “故 石宙明 先生과 그 業績”, 19-21쪽에 실린 ‘發表論文 目錄’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51) 金三守, 韓國에스페란토運動史(1906-1975) (숙명여대출판부, 1976), “石宙明의 業績目錄 및 解說”, 211-226쪽.

52) 문만용, “‘조선적 생물학자’ 석주명의 나비분류학”, 171-177쪽.

뿐 아니라 만주·화북·내몽골 등지의 곤충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쌓아갔다.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 1936-40년 사이에 조복성이 모리 등 일본인 박물학자들과 공동으로 혹은 단독으로 발표한 논문 36편 중 23편이 만주, 화북, 내몽골 지역의 곤충을 연구한 것이다. 그에 비해 이 시기 조선의 곤충을 연구한 논문은 13편에 불과했다. 또한 나비목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한 석주명과 달리, 조복성은 곤충의 형태학적 특성에 정통한 능력을 바탕으로 일본인 박물학자들과 함께 딱정벌레목, 나비목 등 곤충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⁵³⁾ 요컨대 조복성은 모리 등 일본인 박물학자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의 팽창에 따른 지역 조사 수요에 부응하는 만주, 화북, 내몽골 지역의 곤충 상(fauna)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2. 조복성의 중국 곤충 연구와 점령지 기관의 협력

조복성과 모리의 만주 곤충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만주국(滿洲國) 대륙과학원(大陸科學院)이었다. 대륙과학원 연구자들의 도움 없이 처음부터 기초적인 채집여행을 시작해야만 했다면 조복성과 모리가 1936년부터 1940년까지 5년 동안 한해에 많게는 8편이나 되는 만주의 곤충에 대한 분류학 논문을 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륙과학원은 1935년 3월 22일 칙령 제18호로 창설된 만주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연구기관이다. 설립 이후 대륙과학원은 자원개발 이용 종합연구, 연구기술자 양성, 일반과학지식 보급 등의 목적을 수행하는 만주국 내각 국무총리대신 직할 기구가 되었다. 연구 주제는 대체 연료와 대체 식품 자원 개발, 지질 및 자원 조사, 대체 에너지 개발, 군수자원 및 중요자원 대용품 연구 등 만주국 과학기술 연구 전반에 관련된 총 45개의 부문을 망라하고 있었다. 중요한 연구 성과는 수시로 출판하는 □ 대륙과학원 연구보고(大陸科學院研究報告)□ 시리즈를 통해 발표했으며, 기타 일반연구 자료 조사, 강연, 대륙과학원 업무 개황 등은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하는 □ 대륙과학원 회보(大陸科學院彙報)□ 를 통해 밝혔다.⁵⁴⁾

이러한 대륙과학원의 후원과 도움을 받아 조복성과 모리가 수행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가 1938년 5월 □ 대륙과학원 연구보고□ 제2권 제1호로 발표된 “滿洲國の蝶類”(A List of Butterflies in Manchoukuo with Descriptions of Two New Species)이다. 이 논문에서 조복성과 모리는 만주 전역의 나비 분류 연구를 집대성하며 총 6과 61속 217여 종의 나비들의 학명과 생김새, 채집지, 분포 상황 등을 논하였다.⁵⁵⁾

53) 관정조복성박사기념사업회, 앞의 책, “論文解題”, 135-153쪽.

54) 滿洲國大陸科學院, □ 滿洲國大陸科學院要覽□ (1937. 10.), 14-22쪽.

55) 森爲三·趙福成, “滿洲國の蝶類”, □ 大陸科學院研究報告□ 第2卷 第1號

“滿洲國の蝶類” 서론에서 조복성과 모리는 나비 유충이 농작물과 나무의 해충으로서 산업 상 큰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하면서 “大陸科學院의 御好意로부터 이제 本書를 上梓하게 된 것이다” 라고 대륙과학원에 고마움을 표시했다.⁵⁶⁾

“滿洲國の蝶類” 외의 다른 논문들에서도 조복성과 모리는 대륙과학원 연구자로부터 협조를 얻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특히 조복성과 모리는 대륙과학원 하얼빈 분원의 연구자들과 밀접한 연구 협력을 맺었다. 이는 박물관, 동물사육장, 식물원 등을 관리하고 동식물과 지질에 대한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등 곤충 분류학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륙과학원의 연구 조직이 바로 하얼빈 분원이었기 때문이다.⁵⁷⁾ 이들 대륙과학원의 연구자 및 관계자들로부터 조복성과 모리는 하얼빈분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표본이나 고서 열람의 편의를 제공받고 곤충 채집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했다.⁵⁸⁾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얼빈 분원 박물관의 연구자들과 함께 곤충 채집 여행을 가기도 했다. 조복성과 모리는 대륙과학원 연구자로부터 연구 편의를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공동 연구까지 수행했던 것이다.⁵⁹⁾

1938년 경성제대 만몽문화연구회가 그 명칭을 대륙문화연구회로 바꾸며 중국 전역으로 연구 범위와 주제를 넓히면서 조복성의 연구 범위도 만주에서 내몽골과 화북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내몽골과 화북의 곤충을 연구하기 위해 조복성은 몇 차례 연구 조사 여행을 가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경성제대 대륙문화연구회 결성 3일 뒤인 1938년 6월 7일 내몽골과 산서성(山西省) 북부 일대의 인문 자연과학 조사를 목적으로 발족된 몽강학술탐험대(蒙疆學術探險隊)에 참가하여 같은 해 7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한 연구 조사 여행이다.⁶⁰⁾ 몽강학술탐험대의 참가는 조복성의 곤충

(1938. 5.), 1쪽.

56) 같은 책, 1쪽.

57) 滿洲國大陸科學院, □ 滿洲國大陸科學院要覽 □ (1937. 10.), 14쪽.

58) 森爲三·趙福成, “滿洲國の斑蝥科目録”, □ 動物學雜誌 □ 50:1 (1938), 27쪽; “滿洲國の地膽科目録”, □ 動物學雜誌 □ 50:5 (1938), 274쪽; “滿洲國の埋葬蟲科目録”, □ 動物學雜誌 □ 50:6 (1938. 6.), 329쪽; “滿洲國の經節蟲科目録”, □ 動物學雜誌 □ 50:6 (1938. 6.), 326쪽; “滿洲國の郭公蟲科目録”, □ 動物學雜誌 □ 50:6 (1938. 6.), 324쪽; “滿洲國の天牛科目録”, □ 吉田博士祝賀記念誌別刷 □ (1939. 3.), 517-518쪽 등등 당시 조복성과 모리(森爲三)가 공저한 만주의 곤충 연구 논문들에는 거의 대부분 하얼빈 주사 후쿠시마, 연구사 로우카쉬킨(A. S. Loukashkin), 이시와타에 대한 감사의 말이 들어갔다.

59) 관정조복성박사기념사업회, 앞의 책, 78쪽.

60)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 “序言”, □ 蒙疆の自然と文化: 京城帝國大學蒙疆學術探險隊報告書 □ (東京: 古今書院, 1939), 6쪽. 이하 몽강학술탐험대(蒙疆學術探險隊)에 대한 기술은 정규영, “콜로니얼리즘과 학문의 정치학: 15년 전쟁하 경성제국대학의 대륙연구”, 26-31쪽; 정선이, 앞의 책, 120-122쪽; 전경수, “식민과

연구 범위가 조선과 만주 뿐 아니라 내몽골과 화북으로 확장되는 계기였다.⁶¹⁾

조복성이 내몽골과 화북의 곤충 채집을 위해 참가한 몽강학술탐험대의 활동은 중국 점령지 주둔 일본군과 찰남자치정부(察南自治政府)·몽고연맹자치정부(蒙古聯盟自治政府)와 같은 일본의 점령지 통치기관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화북과 내몽골로 진격하고 있던 일본군의 전쟁수행을 학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된 것이었다.⁶²⁾ 탐험 비용은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1천 엔, 일본 외무성 문화사업 보조금 3천 엔, 오사카(大阪) 마이니치(毎日) 신문이 1천 엔 등 일본의 군·관·민이 지원한 도합 9천 엔이나 되는 거액의 금액으로 마련했다. 그 외 조선총독부 철도국, 만주국 철도총국, 남만주 철도주식회사가 대원들의 차비와 화물 운임을 무료로 하는 혜택을 주었다.⁶³⁾ 7월 25일 탐험대 전원이 장가구(長家口)에 집결했고, 26일에는 현지 주둔군 특무기관장과 통치기관 요인의 내몽골·북중국 지역 현황과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중요성 및 특수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7월 29일 탐험대는 장가구를 출발하여 8월 17일 귀환 때까지 내몽골 지역 조사에 나섰는데 그 기간 내내 일본군 원호대(援護隊)가 탐험대원들을 호위했다.⁶⁴⁾

이렇게 점령지 주둔 일본군과 현지 당국의 협조 속에서 조사한 곤충에 대해 조복성은 모리와 함께 3차례에 걸쳐 채집품 목록 및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⁶⁵⁾ 1939년 경성제대 대륙문화연구회가 발간한 『蒙疆の自然と文化: 京城帝國大學蒙疆學術探險隊報告書』에서는 “북지 몽강 지방 동물채집품 목록(北支蒙疆地方動物採集品目

전쟁의 일제인류학: 대북제대와 경성제대의 인맥과 활동을 중심으로 1”, 『比較문화연구』 8:1 (2002), 76-80쪽; 관정조복성박사기념사업회, 앞의 책, 80-102쪽;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 『蒙疆の自然と文化: 京城帝國大學蒙疆學術探險隊報告書』 (東京: 古今書院, 1939) 등을 참조하였다.

61) 관정조복성박사기념사업회, 앞의 책, 81쪽.

62) 정규영, “콜로니얼리즘과 학문의 정치학”, 28쪽; 찰남자치정부·몽고연맹자치정부 등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 팽창한 중국 본토의 점령지를 지배하기 위해 일본이 각지에 수립한 통치기관들이다. 일본은 1937년 9월 4일 하북성 장가구(長家口)에 찰남자치정부(察南自治政府), 10월 5일 산서성 대동(大同)에 진북자치정부(晉北自治政府), 10월 27일 내몽골 후화(厚和)에 몽고연맹자치정부(蒙古聯盟自治政府)를 수립했는데 이들 정부에는 모두 일본인들이 고문으로 배치되어 실권을 장악하고 운영을 조종했다. 같은 글, 26쪽.

63) 같은 글, 5쪽.

64) 같은 글, 10-12쪽. 탐험 일정 동안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 앞의 책, 21-92쪽과 관정조복성박사기념사업회, 앞의 책, 81-102쪽 참조.

65) 森爲三·趙福成, “北支蒙疆地方動物採集品目錄”, 『蒙疆の自然と文化: 京城帝國大學蒙疆學術探險隊報告書』 (東京: 古今書院, 1939), 184-212쪽; 森爲三·趙福成, “蒙古ノ昆蟲類(其一)”, 『朝鮮博物學會雜誌』 27 (1939. 12. 20.), 26쪽; 森爲三, 趙福成, “蒙古ノ昆蟲類(其二)”, 『朝鮮博物學會雜誌』 31 (1941. 6. 30.), 28쪽 등.

錄)”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⁶⁶⁾ 1939년 □ 조선박물학회잡지□ 제27호와 1941년 □ 조선박물학회잡지□ 제31호에도 각각 “蒙古ノ昆蟲類(其一)”, “蒙古ノ昆蟲類(其二)” 제목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⁶⁷⁾

이 외에도 조복성은 모리와 함께 일본의 중국 점령지에 있는 연구 기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곤충을 연구한 논문을 몇 편 더 발표했다. 주로 기재(description)나 목록(list) 위주인 이들 논문 작성에 있어 조복성은 일본의 중국 점령지 연구 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들 중국 점령지 박물관이나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표본을 조복성이 조사하여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근무하는 연구자들이 열람과 대여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연구자들의 호의에 대해 조복성은 논문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곤 하였다.⁶⁸⁾

만주나 내몽골, 화북 등지로 조사 여행을 거듭하며 연구 논문을 계속 발표한 것은 연구자로서 조복성의 입지가 향상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 성과를 축적했을 뿐 아니라 연구 협력 관계를 조선에서 만주나 화북 등지의 일본 점령지 연구 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연구 조사 여행인 몽강학술탐험대의 활동 참가에 대해 조복성이 “이 탐험보고 이후 경성제국대학 대륙문화연구회는 모든 학계에 활달한 (일본의 중국 점령지) 연구와 발전의 근원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또 이와 더불어 나의 연구는 확고한 위치를 세울 수 있는 큰 계기를 이룩하여 주었다” 고 자평한 것도 그 때문이다.⁶⁹⁾ 이렇게 일본인 연구자와의 협력을 통해, 그리고 일본 제국의 팽창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조복성의 중국 곤충 연구는 흥미롭게도 식민지 조선인 사회에서 그 위상이 강화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IV. 조복성의 조선과학운동 참여와 남경박물관 진출 의미

1. 조선인 박물학자들과의 교류와 조선 과학운동 참여

66) 森爲三・趙福成, “北支蒙疆地方動物採集品目錄”, 앞의 책, 184-212쪽.

67) 森爲三, 趙福成, “蒙古ノ昆蟲類(其一)”, □ 朝鮮博物學會雜誌□ 27 (1939. 12. 20.); 森爲三, 趙福成, “蒙古ノ昆蟲類(其二)”, □ 朝鮮博物學會雜誌□ 31 (1941. 12. 20.)

68) 森爲三・趙福成, “北支及蒙疆地方に用ひらる動物藥とその原動物”, □ 朝鮮藥學會雜誌□ 20:3 (1940. 6. 30.), 73쪽; 森爲三・趙福成, “天津北疆博物院所藏天牛科甲蟲目錄”, □ 昆蟲界□ 8:79 (1940), 594쪽; 森爲三・趙福成, “北京靜生生物調查所所長天牛科甲蟲目錄”, □ 昆蟲界□ 8:79 (1940), 601쪽.

69) 關正조복성박사기념사업회, 앞의 책, 102쪽.

식민지 조선에서 조복성이 일본인 박물학자들과 밀접한 연구 협력 관계를 맺으며 박물학자로 성장해 나간 것은 조선인 박물학자 및 조선인 식자층 사이에서도 그의 명성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조복성과 일본인 박물학자들 사이의 관계는 조선인 사회에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조복성은 조선인 과학자들과 학술 활동, 과학 지식 보급 활동 등을 함께 하며 박물학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혀나갔다.

조복성이 본격적으로 연구자 생활을 시작한 1930년대는 조선 사회에서 과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과학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등 조선의 여러 신문들과 잡지들은 과학에 대한 기획 연재기사나 칼럼, 사설 등에 지면을 넓게 할애하며 과학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었다.⁷⁰⁾ 특히 연구 성과가 뛰어나거나 대학에서 높은 학위를 받은 조선인 과학자들에 대해서는 신문·잡지들이 대서특필하며 독자의 이목을 끌었다.⁷¹⁾ “조선인으로서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방면에 우수한 세계적 학자가 나서 세계적으로 그 권위와 名價를 들어 내일 수 있다하면 조선인의 세계적 權威名價가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요 떨어져 민족적 자부심도 그만큼 승진되어서 조선인의 생존운동에도 적지 안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⁷²⁾ 따라서 조선인 최초로 단독 저술한 곤충 연구 논문을 『조선박물학회잡지』에 발표한 이래 잇달아 연구 성과를 거두었던 조복성이 주목받는 조선인 박물학자로 부상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박물학자로서 조복성이 조선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신문들이 주최한 대중적인 곤충 표본 전람회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대중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게끔 유도하면서 조선인 생물학계의 발전을 위해 기획·주최한 전람회에 자신이 소장한 곤충 표본을 출품하면서 조선인 사이에서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⁷³⁾ 이러한 곤충 표본 전람회에 조복성이 초청되었다는 것은 그가 조선 사회에서 박물학자로 인정받고 있음을 뜻하는 일이었다.

1931년 5월 20일 동아일보 학예부 주최로 사옥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70) 현원복, “1930년대의 과학·기술학 진흥운동”,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7), 265쪽; 임종태, “김용관의 발명학회와 1930년대 과학운동”, 『한국과학사학회지』 17:2 (1995), 89-133쪽.

71) 예를 들면 『동아일보』, 1931. 7. 21, 1면 사설, “學者輩出, 學界의 盛事” 참조.

72) 안재홍, “세계에 向하여, 朝鮮에 큰 科學者가 나서 世界的으로 進出하자”, 『三千里』 1 (1929. 6. 12).

73) 예를 들어 『동아일보』, 1931. 5. 21, 4면, “朝鮮昆蟲展覽會 今朝九時에開場 陳列昆蟲數六千六百九十點 朝鮮學界의 첫試驗”; 『조선일보』, 1934. 11. 25., 조간 1면 사설, “朝鮮博物展覽會” 등 참조.

조선곤충전람회에 조복성은 김병하(金秉河)⁷⁴⁾와 함께 소장 표본 6천 6백 9십 점을 출품했다.⁷⁵⁾ 전람회 시작 전날인 19일부터는 5일에 걸쳐 동아일보 지면에 곤충의 특성과 분류, 분포, 채집방법 및 장소, 곤충 연구의 필요성 등에 대한 글을 연재했다.⁷⁶⁾ 1933년 5월 26일에는 화재로 표본을 소실한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 박물관에 딱정벌레(甲蟲)류 표본을 제공하여 감사편지를 받은 것이 신문에 보도되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⁷⁷⁾ 당시 신문들은 이 일화에 대해 “조선학자의 노력과 동정의 결정이 서반아 학계에 빛나는 것 실로 감격할 일이며 이로써 학계를 통하여 서반아와 조선과의 학적교분이 두텁어 질것이라 한다” 고 보도했다.⁷⁸⁾ 곤충 표본 전람회에 참여하고 스페인으로의 표본 제공이 신문 지면에 크게 소개되면서 조복성의 대중적인 인지도는 크게 상승하였다.

1933년 5월 조선인 박물학자들만으로 구성된 조선박물연구회(朝鮮博物研究會)가 조직되었다. 조선박물연구회는 경성 지역을 중심으로 중등학교 조선인 박물 교사들과 기타 박물학자들이 뜻을 모아 만든 학술단체로서 주요 사업은 박물 명칭의 사정(査定), 서적 발행·강연회·전람회의 개최, 연구여행 및 실험표본의 선정·교환 등 학술 연구와 민중에 대한 과학 지식 보급에 관한 내용이었다. 1935년 1월 당시 회원 수는 모두 25명으로 연구 분야에 따라 동물부와 식물부로 나누었는데 조복성은 동물부

74) 김병하(金秉河)는 1906년 개성에서 태어나 송도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송실전문학교 과학관, 송도고등보통학교 교사 등으로 근무한 박물학자로 고보 1학년 때부터 곤충 채집에 열중하였다고 한다. □ 동아일보□, 1931. 5. 21, 4면, “趙·金 兩氏는 숨은 昆蟲學者… 十餘年間 斯界에 專力” ; 朝鮮博物學會, “會員名單”, □ 朝鮮博物學會雜誌□ 17 (1934. 2. 28.), 80-86쪽 등 참조. 그는 특히 1930년대 조선 과학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1934년 7월 5일 창립한 과학지식보급회(科學知識普及會) 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1930년대 중반 조선 과학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과학박물관 건설 운동과 관련, 김병하는 신문 지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과학관 건설을 주장하며 독지가들의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서는 金秉河, “科學館의 必要 有力者諸位에게 訴함”, □ 동아일보□, 1938. 4. 19., 5면 참조.

75) □ 동아일보□, 1931. 5. 17., 4면 광고, “本社學藝部主催朝鮮昆蟲展覽會” ; □ 동아일보□, 1931. 5. 21., 4면, “朝鮮昆蟲展覽會 今朝九時에開場 陳列昆蟲數六千六百九十點 朝鮮學界의 첫 試驗” 참조.

76) □ 동아일보□, 1931. 5. 21., 4면, “朝鮮昆蟲展覽會 今朝九時에開場 陳列昆蟲總數六千六百九十點 朝鮮學界의 첫 試驗” ; 趙福成, “朝鮮昆蟲展覽會에 出品하면서 [제1회]”, □ 동아일보□, 1931. 5. 19., 4면; [제2회], □ 동아일보□ 1931. 5. 20., 4면; [제3회], □ 동아일보□, 1931. 5. 21., 4면; [제4회], □ 동아일보□ 1931. 5. 22., 4면; [제5회], □ 동아일보□, 1931. 5. 23., 4면 등 참조.

77) 張石合, “西班牙 바大學의 呼訴를 들어 全朝鮮博物學者에게 告함(1)”, □ 동아일보□, 1932. 9. 12, 4면; “西班牙 바大學의 呼訴를 들어 全朝鮮博物學者에게 告함(2)”, □ 동아일보□, 1932. 9. 13, 4면; □ 동아일보□, 1933. 1. 29, 2면, “洋行하는 朝鮮昆蟲 西班牙 바大學에 陳列될 標本 二百餘點을 金, 趙 兩氏가 寄贈” ; □ 동아일보□, 1933. 5. 26, 2면, “南歐 學界에 빛나는 洋行한 朝鮮의 昆蟲” ; □ 조선일보□, 1933. 1. 15, 2면, “南歐 情熱의 곳으로 朝鮮産 昆蟲의 洋行... 西班牙 博物館에 寄贈” 등 참조.

78) □ 동아일보□, 1933. 5. 26, 2면, “南歐 學界에 빛나는 洋行한 朝鮮의 昆蟲” .

회원에 속했다.⁷⁹⁾ 이러한 조선박물연구회의 결성은 조복성과 동료 조선인 박물학자 간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조선박물연구회는 결성 이후 과학 대중화의 일환으로 조선일보와 함께 1934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휘문고보에서 조선박물전람회(朝鮮博物展覽會)를 개최하였다. 출품된 수천 여 종의 동식물 표본은 조선박물 연구회원인 조선인 박물학자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경성의 중등학교 학생들이 조선 각지에서 채집한 것이었다. 조선박물전람회의 개최 목적은 동식물과 광물의 조선어 명칭을 알리고, 학생들이 식물 표본을 견학함으로써 박물학에 관심을 가지게 하며, 일반 대중들에게 자연과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면서 박물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었다.⁸⁰⁾ 전람회에 출품된 표본들은 동물 600여 종, 식물 200여 종, 광물 67종이었으며, 표본마다 조선어 명칭을 소개하였다.⁸¹⁾ 조선박물전람회의 의의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회가 가지는 둘째 意義는 출품된 종류전부에 扥하여 朝鮮말로 이름을 부치었다는것이다. 朝鮮은 在來로 부끄러운말이나 物件은 잇스면서도 사람이 업섯든 關係로, 三千里廣大한 地域이 包藏한 數萬種의 動植物에 朝鮮말로 이름을 가진 것이 적다. (중략) 이런 意義로 보면 今番展覽會는 民族的貢獻을 하고 잇는것이다” 고 평가했다.⁸²⁾

조선박물연구회는 학술 연구의 일환으로 조선에 있는 동물과 식물의 조선어 명칭을 조사하여 서적으로 발행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조선박물연구회가 창립될 때 회원들이 추진했던 제일 큰 사업은 조선산 동식물의 향토명(鄉土名)을 통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⁸³⁾ 식물의 경우 정태현(鄭台鉉), 도봉섭(都逢涉), 이덕봉(李德鳳), 이휘재(李徽載) 등 4인이 연 3년간 100여 회의 모임을 갖고 채집한 향명(鄉名)을 토대로 2천여 종의 조선식물명을 수록한 朝鮮植物鄉名集을 1937년 조선박물연구회

79) 朝鮮日報, 1933. 6. 27, 4면, “各學校博物敎員網羅 博物研究會創立 于先, 動植物名稱의 査定부터”; 朝鮮日報, 1935. 1. 2, 1면, “學術團體의 參謀本營 京城博物研究會”; 朝鮮日報, 1933. 6. 27, 2면, “斯界權威者들이 團結 朝鮮博物研究會 創立”; 朝鮮日報, 1936. 11. 5, 조간 2면, “우리 學界의 새文獻 朝鮮植物名集”.

80) 李軒求, “朝鮮博物展覽會를 開催함에 대하여 (中)”, 朝鮮日報, 1934. 11. 20, 제2석간 4면; 李軒求, “朝鮮博物展覽會를 開催함에 대하여 (下)”, 朝鮮日報, 1934. 11. 22, 제2석간 4면.

81) 朝鮮日報, 1934. 11. 20., 조간 2면, “博物研究會 本社 共同主催 朝鮮博物展覽會大觀 植物編”; 朝鮮日報, 1934. 11. 21., 조간 2면, “博研 本社 共同主催 朝鮮博物展覽會大觀 動物編”; 朝鮮日報, 1934. 11. 22., 조간 2면, “博研 本社 共同主催 朝鮮博物展覽會大觀 鑛物編” 등 참조.

82) 朝鮮日報, 1934. 11. 25., 조간 1면 사설, “朝鮮博物展覽會”.

83) 都逢涉, “朝鮮博物展覽會植物部陳列을 마치고”, 朝鮮日報, 1934. 11. 28., 제2석간 4면.

회원들이 회비를 각출하여 발간하였다.⁸⁴⁾ 이러한 조선산 동식물의 향명 조사 및 서적 발행 사업에 있어 조복성도 조선박물연구회 동물부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1년에 십여 차례씩 모여 연구 결과를 교환하고 표본 감정회도 갖는 등 활발하게 교류했다고 한다.⁸⁵⁾ 조복성이 조선박물연구회의 동식물 조선어 명칭 조사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인지 1936년 조선어학회에서 『우리말 큰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할 때 곤충 관련 전문어 풀이를 자문하는 전문가로 위촉되었다.⁸⁶⁾

이렇듯 조선인 박물학자들과의 교류와 활동 범위를 넓히며 연구자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조복성은 1930년대 과학 대중화 활동을 추진한 과학지식보급회에도 발기인으로 참여할 만큼 박물학계 외부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⁸⁷⁾ 과학지식보급회는 회장 윤치호, 부회장 이인을 위시하여 고문에는 조만식, 송진우, 방응모, 여운형, 김성수 등 사회 각 부문의 조선인 지식인들과 유력자들을 망라한 상설적인 과학대중화 운동 단체였다.⁸⁸⁾ 이 과학지식보급회 창립총회가 열린 1934년 7월 5일 조복성은 이극로, 안동혁 등과 같은 당대의 저명한 조선어학자, 화학공학자와 함께 연구위원으로 선출되었다.⁸⁹⁾ 과학지식보급회에서 조복성은 평이하고 통속적인 대중 과학지식 보급서인 『과학독본』 편찬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⁹⁰⁾

연구 성과를 계속 올려나가고 과학 대중화 활동에 참여하며 조선인 사회에서 박물학자로 이름이 알려진 조복성은 도봉섭, 석주명, 정태현 등과 함께 “조선

84) 鄭台鉉·都蓬涉·李德鳳·李徽載, 『朝鮮植物鄉名集』(朝鮮博物研究會, 1937), “序”; 李德鳳, “最近世韓國植物學研究史”, 『亞細亞研究』 4:2 (1961), 136쪽. 『조선일보』, 1936. 11. 5., 조간 2면, “七百圓出版費 各會員들이 自擔으로 同會幹事 李徽載氏談”. 『조선일보』, 1937. 4. 10., 조간 2면, “四氏의 共同業績 “朝鮮植物鄉名集” 科學朝鮮의 明朗報”.

85) 『조선일보』, 1936. 11. 5., 조간 2면, “우리 學界의 새 文獻 朝鮮植物名集”. 이 기사에 보도된 조선박물연구회 식물부 위원과 동물부 위원 명단은 각각 다음과 같다. 식물부 위원: 鄭台鉉, 都蓬涉, 李德鳳, 尹丙燮, 李徽載, 李庚洙, 韓昌愚, 俞奭濬, 沈鶴鎮, 동물부 위원: 元弘九, 趙福成, 李德象, 孟元永, 李軒求, 金教臣, 宋在駿, 李根震, 鄭文基, 尹禎皓, 孫貞順.

86) 한글학회, 『한글학회 50년사』(한글학회, 1971), 269-270쪽. 조복성을 포함하여 특별한 성의를 가지고 『우리말 큰사전』의 전문어 풀이에 참여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다. 물리학, 화학: 이만규, 고어, 궁중어: 권덕규, 기독교어: 강병주, 수학: 이명철, 곤충학: 조복성, 천문학: 이원철, 불교어: 송병기, 민속어: 송석하, 제도어, 음식용어: 이중화, 식물학: 이덕봉, 한의학: 조현영, 수산학: 정문기, 체육어: 이경식, 고전건축용어: 권상로, 현대문학용어: 김문집, 속담, 은어: 이용기.

87) 『과학조선』 3:1 (1935. 2.), “科學智識普及會一覽”, 31쪽.

88) 임종태, “김용관의 발명학회와 1930년대 과학운동”, 110쪽.

89) 『과학조선』 3:1 (1935. 2.), “科學智識普及會一覽”, 32쪽.

90) 『과학조선』 3:2 (1935. 3.), “會況報告”, 42-43쪽.

박물학계의 4인방” 중 하나로까지 평가받았다.⁹¹⁾ 또한 박물학자 조복성을 소개하는 신문의 대서특필도 잇달았다.⁹²⁾

2. 중일전쟁 시기 조복성의 남경박물관 진출과 그 의미

중국 곤충 연구로 연구자로서 성장한 조복성은 1941년 11월 경성제대 의학부 조수로 자리를 옮겼다.⁹³⁾ 경성제대 예과 시절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더욱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한 것이다. 이처럼 조복성이 의학부 조수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해충(害蟲)에 의한 기생충병 감염을 연구하는 열대의학 분야가 박물학(natural history)의 연구 전통에 따라 발전하면서 방법론적, 이론적 관점에서 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⁹⁴⁾

조복성이 경성제대 의학부 조수로 자리를 옮기던 시기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이 중국 점령지 통치체제의 정비와 함께 학술 교육 연구기관 또한 개편하고 있던 때였다.⁹⁵⁾

91) 安東赫, “最近朝鮮科學界動向의 一般的業績에 關한 小考”, 『조선일보』, 1938. 1. 6., 제2석간 6면.

92) 『조선일보』, 1939. 1. 5., 제2석간 2면, “아름다운 새벽, 昆蟲世界의 賞春報, 嚴肅한 微虫의 貞操觀, 十年積功의 昆蟲學者 城大豫科趙福成氏”; “昆蟲世界에 陶醉된 趙福成氏 研究室”, 『조광』 1939년 4월호, 291-295쪽.

93) 관정조복성박사기념사업회, 앞의 책, 118쪽. 조복성이 근무했다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조수(助手) 자리가 제국대학 강좌제 하에서 조선총독부 판임관(判任官) 대우를 받으며 조교수 다음의 대우를 받는 조수(助手)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조복성이 1941년 11월-1942년 2월 경성제대 의학부 조수로 근무한 이후 발간된 『京城帝國大學一覽』 1942년도 판에 기재된 직원 명단에 조복성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는다. 『京城帝國大學, 『京城帝國大學一覽』 1942년도, 311쪽. 또한 1941년도 『조선총독부직원록』에 기재된 경성제국대학 직원 명단에서도 조복성의 이름은 실려 있지 않다.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직원록』 역사정보시스템 [http://www.history.go.kr] 전산 자료에서 재인용. 2006. 11. 24. 확인) 이와 관련해서 조복성과 함께 고려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근무했던 김창환은 조복성이 경성제대 의학부에서 강좌제 하의 조수(助手)로 근무한 것은 아니었으며 기생충학 교실에서 예과 시절과 다를 바 없는 조교로 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김창환 (2007. 1. 10.).

94) 박물학과 열대 의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Shang-Jen Li, “Natural History of Parasitic Disease: Patrick Manson’s Philosophical Method,” *Isis*, Vol. 93, No. 2 (2002), pp. 206-228을 참조.

95) 일본의 중국 점령지 각지에 산재해 있던 통치기관들은 1940년 3월 10일 남경(南京)에서 왕정위(汪精衛)를 주석으로 하는 중화민국국민정부(中華民國國民政府)로 통합했다. 그러나 내몽골과 북중국 일부 지역을 관장하는 몽강연합자치정부(蒙疆聯合自治政府)는 몽강(蒙疆)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해체하지 않은 채 중화민국국민정부(中華民國國民政府)의 일익(一翼)이 되도록 남겨 두었다고 한다. 永松淺造, 『新中華民國』 (東華書房, 1942), 32쪽.

일본은 반공(反共)·친일(親日)을 근본 방침으로 중국인의 항일 저항 의식을 약화시키고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에 충성하도록 할 목적에서 중국 점령지 학술 교육 연구기관을 개편했다. 특히 장개석(蔣介石) 국민당 정부의 전(前) 수도이자 1940년 3월 현재 왕정위 국민정부 근거지인 남경이 있는 화중(華中) 지방에서의 ‘문화공작(文化工作)’은 더욱 강했다.⁹⁶⁾ 이러한 ‘문화공작’을 위해 개편된 대표적인 학술 연구 기관이 바로 국립중앙연구원(國立中央研究院)이었다. 국립중앙연구원(國立中央研究院)은 남경(南京) 점령 후 상해(上海)에 있는 일본의 식민지 과학 연구기관인 자연과학연구소(自然科學研究所)의 협력으로 잔존한 유물을 보존 정리하며 화중(華中) 문화공작(文化工作)의 중요한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었다.⁹⁷⁾

이처럼 잇달아 개편되고 있는 중국 점령지 학술 연구 기관들을 일본의 의도에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 필요했다. 중국의 사정에 능통하면서 점령지에 일본이 설치한 학술 연구 기관과 협력 관계가 밀접한 일본인 연구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군부의 적극적인 요망으로 중국 점령지 통치를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설치된 흥아원(興亞院)이 모리에게 중국 점령지 학술 연구기관의 동물학 연구원으로 특파하겠다는 연락을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⁹⁸⁾ 그러나 모리는 개인 사정으로 중국 파견 근무를 거절하고 대신 조복성을 동물학 연구원 특파 대상으로 추천했다. 모리의 추천으로 조복성으로 중국 점령지 학술 연구기관의 동물학 연구원으로 파견될 수 있었다.⁹⁹⁾

1942년 2월 조복성은 왕정위 국민정부의 문물보존위원회 특파연구원 자격으로 남경박물관(南京博物館)에 근무하게 되었다.¹⁰⁰⁾ 남경박물관은 1933년 당시 중국 국립중앙연구원(國立中央研究院)장이었던 채원배(蔡元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최고급 국보 2-30만점을 소장했던 1930년대 중국 제1의 중앙박물관이었다.¹⁰¹⁾ 이 남경박물관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한 다음에는 1943년 9월 다시 항주(杭州) 서호박물관(西湖博物館) 특파연구원으로 진출하였다. 이처럼 조복성은 남경박물관, 항주 서호박물관 등 중국 유수 박물관의 연구원으로 진출할 정도로 만주와 중국 곤충 연구자로서 인정받았다.

남경박물관, 항주 서호박물관 등 중국의 연구 기관에 근무했을 당시의 생활에 대한 조복성의 언급은 간략하다. 연구 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단지 “중국에 있는 동안에는

96) 같은 책, 85-90, 266쪽.

97) 上海每日新聞社, 『華中現世』(1939), 910쪽.

98) 관정조복성박사기념사업회, 앞의 책, 123쪽.

99) 같은 책, 123-124쪽.

100) 같은 책, 124쪽, 134쪽.

101) 남경박물관(www.njmuseum.com) 영문판 홈페이지 역사(History)란 참조 (2006. 9. 27. 확인).

주로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귀중한 문헌을 복사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때의 문헌들을 그대로 놔두고 왔으니 헛일이었다” 라는 간단한 언급만 있을 뿐이다.¹⁰²⁾ 중국에서 3년 반 가량 박물관 연구원 생활을 했던 조복성은 1945년 8월 3주일간의 출장 휴가를 얻어 조선으로 귀국한 지 3일 만에 8·15 해방을 맞이하였다.¹⁰³⁾

이러한 조복성의 사례는 식민지시기 적어도 과학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협력(collaboration)과 민족주의의 구분과 경계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¹⁰⁴⁾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인 박물학자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중국 곤충 연구로 성장한 조복성의 경력은 그가 1930년대 조선인 사회에서 박물학자로 인정받으며 교류 범위를 넓혀 가는 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연구 방식이나 대상, 연구 배경에는 상관없이 조선인 생물학자로서 두드러지게 많은 연구 성과를 냈다는 점이 부각되고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조선인 사회에서 조복성이 교류와 활동 범위를 넓혀간 것이 그가 중국 남경박물관 특파지도원으로 진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지도 않았다. 조복성은 개편되고 있던 중국 점령지에 있는 유수의 학술 연구 기관에 진출할 수 있을 만큼 인정받는 중국 곤충 전문가였다.

V. 맺음말

식민지시기 조복성은 평양고보 사범과를 졸업한 후 일본인 박물학자로부터 도제식 학습을 받으며 조선인으로서는 거의 최초로 곤충 분류학 연구를 시작했다.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안정된 환경 속에서 조복성은 일본인 박물학자들과 함께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곤충과 나비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야외에서 여러 다양한 곤충을 채집하여 기초적으로 분류한 조복성의 연구 성과는 1945년 이전까지 논문 58편으로 발표되었다.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발발 이후 늘어난 중국 점령지 조사 필요성에 따른 경성제대의 중국 연구 활성화 방침에 따라 모리와 함께 만주·내몽골·화북 등의 곤충을 연구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중국의 곤충을 조사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데 있어 조복성은 만주국 대륙과학원 등 일본의 중국 점령지 기관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들 일본의 중국 점령지 기관들은 단순히 연구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도 했다. 이렇게 중국

102) 관정조복성박사기념사업회, 앞의 책, 126쪽.

103) 같은 책, 132쪽.

104) 이와 관련해서 윤해동, “식민지 인식의 ‘회색지대’ : 일제하 ‘공공성’ 과 ‘규율권력’ ”,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역사비평사, 2006), 37-61쪽의 논의를 참조.

각지의 곤충에 대해 연구 실적을 쌓아가면서 조복성의 연구 범위와 협력 관계는 식민지 조선을 넘어 중국으로 확장되었다.

곤충분류학 논문들을 다수 발표하며 박물학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조복성은 조선인 사회 및 중국의 학술 연구기관들을 재편하고 있던 일본 정부 기관 모두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다. 조선 신문 지상에서 대표적인 조선인 박물학자로 보도되면서 조복성의 대중적인 인지도는 높아져 갔다. 조복성은 조선인 생물학자들과 학술 활동을 활발히 하고 각계각층의 조선인 엘리트들이 망라된 과학지식보급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교류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조복성이 중국 곤충을 연구하며 협력 관계를 확장해 간 것은 그가 중국 남경박물관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조복성의 사례는 20세기 전반 식민지 조선의 박물학사의 이해를 보다 풍부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조복성이 연구자로 성장한 경로와 배경은 식민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조선인이 박물학 연구자로 성장하고 활동하는 데 일본인 과학자와의 밀접한 관계가 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조복성의 중국 곤충 연구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발발 이후 증대된 중국 점령지 조사의 수요에 따라 조선인 박물학자의 연구 활동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보기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발발로 증대된 지역 조사 필요성에 부합하는 연구들을 장려했던 경성제대의 박물학자와 만주국 대륙과학원 등 일본의 중국 점령지 기관과의 협력이었다. 조복성이 일본 측으로부터는 물론 조선인 사회에서도 박물학자로 인정받았던 것은 식민지시기 적어도 과학 분야에서는 협력(collaboration)과 민족주의의 경계가 그리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1930년대 조선 신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 과학 대중화 운동이 전개되던 식민지 조선에서 조복성과 같이 연구 논문을 많이 발표한 조선인 박물학자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자랑스럽게 부각할 수 있는 존재였다. 흥아원(興亞院)에게 있어서도 모리나 도이와 같은 일본인 박물학자들로부터 도제식 학습을 받고, 추천과 보증을 받은 조복성은 중국 남경박물관으로 파견하는 데 적격인 조선인 생물학자였다.

해방 후 조복성은 중국 남경박물관 · 항주 서호박물관 특파연구원으로 진출한 경력을 인정받아 당시 국내 생물학 연구의 중심 기관 역할을 하던 국립 과학박물관장에 임명되었다.¹⁰⁵⁾ 1945년 11월 3일 경성 약학전문학교 제2강의실에서 열린

105) 이병철은 이에 대해 “가고시마 농림을 나온 학력으로 보나 세계적 학자라는 명성을 보아서도 석주명이 관장이 되어야 했으나 당시 미군정 당국자들은 그런 면에 눈이 어두웠다. 조복성은, 사범학교 출신이면서도 일본인 곤충학자 모리의 조수를 지낸 인연으로 전쟁이 끝나기 직전 중국 항주(抗州)박물관에 근무했던 이력을 더 높이 평가받은 데다, 문교부 인사행정처장을 지낸 길성훈의 소개에 힘입어 관장이 되었던 것이다”라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병철, 『석주명 평전』 (그물코, 2002), 233쪽. 그러나 조복성이 조선 이외에 만주 · 내몽골 · 화북 등 중국 각지의 곤충을 연구하며 연구 성과를 올렸을 뿐 아니라

조선생물학회 창립총회에서는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¹⁰⁶⁾ 과학박물관장과 조선생물학회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조복성은 일본어로 된 동식물의 명칭을 조선어로 바꾸는 일에 참여했다.¹⁰⁷⁾ 또한 1946년부터 1947년까지 과학박물관 동물학연구부에서 발간한 『국립과학박물관동물학연구보고』에 하늘소과 곤충의 조선어 명칭을 정리한 논문을 비롯하여 4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¹⁰⁸⁾ 1951년 3월까지 국립과학관장으로 재직한 조복성은 1953년 4월에는 성균관대학교 교수, 1955년 3월부터는 고려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¹⁰⁹⁾ 이렇게 식민지시기 이후에도 계속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한 조복성이 한국 생물학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조명해 본다면 해방을 전후로 생물학 분야에 연속성이 강했는지 약했는가 또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에서 조복성의 해방 후 행적에 대해서도 연구할 가치가 크지만 이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어 두도록 하겠다.

1930년대 중국 제1의 중앙 박물관이었던 남경박물관을 비롯하여 그가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곳들이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일류 박물관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평가는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나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 김창환은 식민지시기 조복성이 중국 남경박물관과 항주박물관에 근무하여 과학관 같은 곳은 국내인 중에서 가장 밝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김창환 (2007. 1. 10.).

106) 李敏載, “‘38선 언급 러시아 밀서 보기도… 용어 통일 작업도중 6·25 터져’, 『第三滄巖文集』 (도서출판 아카데미서적, 1990), 312쪽.

107) 해방 이후 창립된 조선생물학회에서는 도봉섭을 위원장으로 한 조선어 생물술어 제정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생물술어 제정위원회 위원은 도봉섭 외에 정태현, 조복성, 심학진, 이민재, 강영선, 이규완, 이영노 등이었다. 이영노, “도봉섭교수를 그리며”, 『도봉섭: 탄생 백주년기념자료집』 (자연문화사, 2003).

108) 문만용·김영식, 『한국 근대과학 형성과정 자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257-259쪽.

109) 관정조복성박사기념사업회, 앞의 책, 134쪽.

<ABSTRACT>

The Context of a Korean Naturalist's Career-building in Colonial Korea:

Cho Pok Sung(趙福成) as an Example of Colonial Entomologist

KIM Sung Won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early career of CHO Pok Sung(趙福成), one of the representative Korean naturalists in Colonial Korea. The point is that Cho could develop his career as a naturalist in connection with Japanese imperial expansion. Cho was trained as an apprentice by MORI Tamezo(森爲三) and DOI Hironobu(土居寛暢), and became an assistant for the preparatory course of biology in Keijo Imperial University(京城帝國大學) in 1930. From the collaboration with these Japanese naturalists, Cho extended his research from the insects of Korean peninsula to those of Manchuria and China. Cho could also extend his personal network to Japanese-occupied territories in China.

Both Korean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regarded Cho as a competent naturalist. Cho participated in the Association for the Diffusion of Scientific Knowledge(科學知識普及會), which included Korean elites from various levels of society. In 1942, Cho, the former local apprentice of Japanese naturalists, could be promoted as high as a researcher in Nanjing Museum(南京博物院). The appreciation of Korean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on Cho shows the border between cross-national collaboration and nationalism was not clear in the field of science in Colonial Korea. The case of Cho illustrates how Korean naturalists practiced in the research environment of Colonial

Korea.

Key words: CHO Pok Sung, Colonial Korea, Natural history in Korea,
Entomological taxonomy, Colonial Science, Collaboration